

호랑이굴 불펜 포수 7년의 기다림 끝 '백호' 변신

또 한명의 '연습생 신화' 기대하라

스포츠 포커스

KIA 포수 변선웅

'기적을 만드는 사나이...'

KIA 팬들에게 01번 변선웅은 익숙한 이름이다. 불펜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투수들의 공을 받아주고, 장비를 챙기는 포수를 대신해 경기 중간 경기장에 종종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KIA의 변선웅으로 산지 7년째. 하지만 공식 기록은 없다. 선수가 아닌 불펜 포수가 그의 자리였기 때문이다.

불펜 포수로 살아왔던 변선웅이 2010시즌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선수 변선웅. 불펜 포수를 상징하는 배번 01번 대신 70번이라는 번호도 새로 받았다. 늘 그라운드에 살면서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던 변선웅이 마침내 꿈의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신고선수(연습생) 신분이라는 하지만 2군 무대를 밟을 수 있다. 더 큰 무대에 변선웅을 기대한다. '홈런왕' 장종훈, '타격기계' 김현수 등이 신고선수 신화를 쓴 인물들이다.

등성고 출신의 변선웅은 고등학교 시절 김주형(KIA·상무 복부중), 이원석(두산), 허승민(삼성)과 함께 모교 청룡기 우승 현장에 섰던 안방마님이었다. 하지만 졸업 후 이들의 명암이 엇갈렸다. 함께 운동

을 했던 김주형이 '타자 최대'로 3억원의 계약금을 받고 KIA에 입단했지만 변선웅은 프로팀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대학으로 진학해 다시 한 번 프로무대에 도전하려면 꿈은 어려운 가정형편 앞에 무너졌다. 빛을 내서라도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싶었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문기사를 건넬 수밖에 없었다. SK 조웅천, 박경완 등 연습생 신화를 담은 기사들이었다. 아버지의 뜻을 이해한 아들은 계약금도 없는 불펜 포수의 길을 선택했다.

▲신고선수(일명 연습생)=KBO에 정식으로 등록되는 팀당 63명에 포함되지 않고, 신고된 뒤 있는 선수들을 말한다. '연습생 신화'의 주인공 장종훈 이후 많은 신고 선수 출신 스타 플레이어가 탄생하여 정식 지명만 받지 못했지만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발굴하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신고선수 등록... 등번호 70번 달고 2군 무대에

'홈런왕' 장종훈 '타격기계' 김현수 처럼 되고파

"목표와 꿈 생겼어요...이젠 기적을 만들어야죠"

그렇게 시작한 생활이 7년이 됐다. 불펜 포수로 6시즌을 보낸 경우는 흔치 않다. 투수들과의 나이 차가 벌어질수록 양측의 입장이 미묘해지는 경우가 있어 구단에서는 나이 어린 불펜 포수를 선호 하는 편이다. 불펜 포수로 무시 아닌 무시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선수'라는 꿈이 있어서 지난 시간이 힘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간절하게 바라던 꿈을 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팀이 12년만의 우승을 달성한 지난해 변선웅은 심한 속앓이를 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답답해 며칠 그라운드를 떠나기도 했다. 병원까지 찾았지만 스트레스성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선수등록의 꿈이 깨지면서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포기'라는 단어를 내뱉었다.

조범현 감독이 새로 부임한 2008년, 변선웅에게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가 찾아왔다. 전지훈련 청백전 당시 포수들이 몸이 좋지 않아 경기에 나갈 포수가 없었다. 경기를 위해 변선웅이 대타로 마스크를 썼다. 변선웅을 유심하 지켜본 조범현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변선웅을 찾아 "한국에 들어가면 웨이트도 하고, 스윙 연습도 하라"고 말했다.

밤에 홈루 베트를 휘두르고, 일찍 경기장에 나와 배팅 머신을 틀어놓고 연습을 해왔던 변선웅에게는 천금같은 기회였다. '진짜 선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솟아났던 2008년을 달렸던 변선웅은 시즌이 끝나고 테스트를 받았다.

하지만 구단의 사정상 선수 등록이 되지 않았다. 꿈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라운드가 낯설게 느껴졌고 처음으로 '포기할까?'라는 생각까지 했다. 그러나 6년이라는 고된 시간을 버티게 했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동안 바보같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목표가 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 하지 않았습니니다. 내 자신과의 약속을 버리고 싶지 않았고, 지금이 아니면 영영 야구를 할 수 없기에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다시 한 번 인생의 시간을 보냈습니니다."

자신을 믿고 응원해준 사람들의 기대도 저버릴 순 없었다. 자신을 위해 늘 기도하는 부모님과 야구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 조범현 감독의 믿음을 보답하고 싶었다.

"감독님이 틈틈이 연습 상황 등을 물어보시면서 신경 써주셨습니니다. 선수등록이 안된 뒤에는 따로 불러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씀 해주셨습니니다. 내



KIA 불펜포수 생활 7년만에 2군 무대에 오르게 된 변선웅이 '연습생 신화'를 꿈꾸며 시즌 개막일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변선웅은 투수들의 불을 받아주면서 이강철 투수코치와 구질에 대해 얘기를 나누기도 한다.

젠 가장 고마운분입니다."

KIA의 안방마님 김상훈도 고마운 선배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라곤 독한 맘을 먹으라고 으름장을 놓았던 김상훈은 시간이 날 때마다 기본기를 하나하나씩 알려주었다. 장비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포기대신 도전을 선택한 그는 2009시즌이 끝나고 마침내 신고선수로 이름을 올리며 그라운드에 설 수 있게 됐다.

"남해 마무리 캠프에서 훈련을 듣고 있는데 조범현 감독이 직접 오셔서 앞으로는 다른 선수들과 똑같이 훈련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니다. 연습시간이라 기뻐할 틈도 없었지만 속수에 들어와 '이제 됐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감격스러웠습니니다."

7년의 기다림 끝에 큰 산을 넘었지만 변선웅에게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신고선수로 살아남아야만 1군 무대를 밟을 수 있다. 또 얼마 전 강전에서 훈련을 하다 발목을 다쳐 잠시 휴식중이다. 그러나 희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두렵지는 않다.

"가끔은 내 모습에 스스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선수등록이 됐다는 사실이 여전히 놀랍습니니다. 현역에서 둘러났다가 7년 만에 다시 그라운드에 선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 내 자신이 여전히 놀라고 더 달려보고 싶습니니다." 변선웅의 흥파와 이야기는 '기적을 만드는 사나이'다. 지금까지의 한걸음 한걸음이 기적이었고, 또 앞으로 이뤄나갈 기적이 더 많기에 변선웅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조선대학교 ·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

관상·단 한번의수강으로 내 인생이 성공한다
관상학: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시주명리학·동강대학

관상이란?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의 자나은 과거 여정이자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능관계의 결과물이다. 손자법에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 라고했다.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낯 놓고 그자도 모른다" 면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

동강대의 귀곡사주란? 우주의 천서를 꿰뚫어본 귀곡사주 사주풀이가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곡을 하고도 믿었다 하여 부처진 귀곡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개합니다.

대학교별	교육과정	기간 및 요일	강의시간	수강료	기타전화
조선대학교	관상학 초급	32부티 매주 화요일(15주)	(주)14-17시 (화)19-22시	150,000원	230-7700-3
평생교육원	관상학 심화	35부티 매주 금요일(15주)	(화)19-22시		
동강대학교	사주명리학 초급	3,10부티 매주 수요일(15주)	(화)10-21시	100,000원	520-2516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 심화	3,11부티 매주 목요일(15주)	(화)19-21시		

등록안내 조선대-조기등록 1,20~2,5까지 등록세 해당수강료 10%감면 정기등록 2, 1~2, 19까지, 동강대 정기등록 1,25~2,27까지

등록방법 해당기관 직접방문이나 전화등록 후 금융기관 입금

장학특전 65세 이상 30% 감면 등(각 학교 홈페이지 참조)

교육전담강사 소석 동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사주·관상 개인교습 실시!]

문의: 각대학교 전화,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1-644-7232

한라 친환경 전동운반차

농림부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 연 3% (1년 기차 5년 균등 분할 상환)

농촌, 과수원·농장에도~ 하우스에도~ 마트·시장이에서 배송할때도~ 창고에도~

안전한 운송수단을 원하신다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라 전동운반차로 바꾸세요!

대리점 취급점 영리사업 일러모집

- 무공해 친환경 전기에너지차 사용합니다
- 부품의 최신품을 일일적인 A/S가 가능합니다.
- 장기저리 농협융자를 통한 초기 구매부담 최소화
- 판매가격의 90% 상거래보증, 1년 기차 5년 상환, 연리 3%
- 고속차 108km/회(1차제량 200kg)

일반 유류 운반차 유류비용으로 한라 전동 운반차 지급 가능

한라헬스텍(주) HALLA Weltech Corp. TEL 062) 956-8823 061) 852-8896 H-P 010-9468-3282

해령법률경매 사원모집중

T:062)430-7117 H.P:011-629-0827 김법장 위치:법령전문할

대표:성 불규 (법원등록번호 16-07-29)

전 조양대교 동명대학교 법학박사 성 불규
전 한국해양대학교 법학박사 성 불규
전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성 불규
전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성 불규
전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성 불규

지역	소재지	지목	면적(㎡)	강제가	최고가	비고
근린주택(광주·전남 지역)	광주	동산구	15554	1억1천	1억1천	1억1천
	광주	동산구	1481	1억1천	1억1천	1억1천
	광주	동산구	1217	2억1천	2억1천	2억1천
근린주택(광주·전남 지역)	광주	동산구	157	7천5백	7천5백	7천5백
	광주	동산구	1890	10억	10억	10억
	광주	동산구	13802	2억4천	2억4천	2억4천
근린주택(광주·전남 지역)	광주	동산구	596	9천5백	9천5백	9천5백
	광주	동산구	1673	3억1천	3억1천	3억1천
	광주	동산구	2005	1억4천	1억4천	1억4천
근린주택(광주·전남 지역)	광주	동산구	81	2천5백	2천5백	2천5백
	광주	동산구	182	2천2백	2천2백	2천2백
	광주	동산구	35	2천5백	2천5백	2천5백
근린주택(광주·전남 지역)	광주	동산구	81	2천5백	2천5백	2천5백
	광주	동산구	182	2천2백	2천2백	2천2백
	광주	동산구	35	2천5백	2천5백	2천5백